

## 日, 電氣機器 생산 감소 전망

일본전기공업회는 4월부터 시작되는 '96년도 전기 기기 국내 생산전망에서 중전기기와 가전기기(에어컨·냉장고·세탁기)를 합친 전기기기 생산액은 '95년도 실적전망치 보다 2.5% 감소한 7조 451억엔으로 2년만에 마이너스 성장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일본 국내생산은 '94년도부터 2년간 전년도실적을 웃돌았으나 '96년도엔 가전분야가 해외생산 증가로 4.9% 감소한 2조 7,867억엔에 그쳐 전체적으로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중전기기분야도 마찬가지로 해외조달이 많아지면서 전년도비 0.8% 감소한 4조 2,584억엔에 머물 전망이다.

일본전기공업회에 따르면 '96년도 중전기기분야의 일본국내 생산은 전력관련 설비투자 억제와 해외로부터의 자재조달확대등 영향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기기종별로 보면 서보모터는 사상최고를 기

록할 것이나 수력터빈은 75.7%나 대폭 감소할 전망이다. 내역은 발전용 원동기가 0.2% 증가한 7,387억엔, 회전전기기계가 4.4% 감소한 1조 512억엔, 정지전기기계가 1.3% 감소한 7,334억엔, 개폐제어장치·개폐기기가 1.2% 증가한 1조 7,351억엔이다. 회전전기기기중 서보모터는 6.8% 증가한 933억엔으로 '90년도의 879억엔을 웃돌아 사상최고를 기록하게 된다.

한편 가전기기는 해외생산이 더욱 늘어나고 있는데다 '94년과 '95년과 같은 폭서에 의한 에어컨수요증가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또 가전제품의 수출은 6.4% 감소한 2,239억엔에 달할 것이나 수입은 25% 증가한 1,916억엔으로 '94년도 이래 3년 연속 증가세를 나타낼 것인데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97년도엔 수출입액이 균형을 잡을 것으로 전망된다.

## 中國, 三峽댐 터빈 발전기 입찰

중국 당국은 세계 최대규모의 댐공사로 알려진 三峽댐 터빈발전기 공급입찰을 2/4분기중에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국관영 新華통신은 삼협댐에 설치될 총 7백 MW급 터빈발전기 26대중 12대에 국제입찰을 올 상반기중에 실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신화통신은 나머지 14대 터빈발전기에

대한 입찰시기는 밝히지 않았다. 이번 삼협댐 터빈발전기 국제입찰 발표는 중국 당국이 그동안 자금조달과 컨설팅등의 기초단계에 머무르던 삼협댐 공사를 본격화하는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중국은 당초 이 댐의 터빈발전기 국제입찰을 1/4 분기에 실시키로 했다가 외자도입지연을 이유로 2/4분기로 미뤘다.

현재 한국의 한국중공업과 현대중공업, 대우중공업, 한라중공업 등이 단독 또는 해외업체들과 컨소시엄을 구성, 삼협댐 터빈발전기 국제입찰에 참여할 계획을 세우고 있고 일본, 러시아, 독일, 미국 등의 10여개 社도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오는 2003년까지 삼협댐공사를 마무리하기로 하고 올 1/4분기중에 핵심발전설비인 26대의 터빈발전기 공급업체를 선정할 예정이었으나 최근 미국 수출입은행의 지급보증 보류 조치등으로 난관에 봉착한 상태이다.

이와관련, 국제금융전문가들은 「미국이 예전에는 삼협댐건설에 따른 환경파괴를 내세워 차관제공을 꺼렸으나 현재는 대만-중국간 군사적 긴장을 이유로 금융지원을 미루고 있다」며 미국과 중국이 삼협댐건설비용협상을 어떻게 마무리 할지가 국제적 관심사라고 밝혔다.

삼협댐 공사는 지난 94년 12월 착공해 오는 2003년에 준공예정인 세계 최대 규모의 공사이다.

揚子江을 막아 전기를 일으키고 홍수를 방지하기 위해 1900년초 孫文때부터 논의돼왔던 사업이다.

댐의 길이는 1천 9백 83m, 높이는 1백 85m (중간에 4백 83m의 배수댐 포함)이다. 68만 kW의 터빈발전기 26대(배수댐 좌측 14대 우측 12대)가 설치된다.

이 공사가 완공되면 댐의 총 저수용량은 3백 93억m<sup>3</sup>(만수위 1백 75m 홍수위 1백 45m)에 달하고 연평균 발전용량이 8백 40억kW에 이른다.

이 규모는 현재 세계 최대규모인 南美의 이타이푸 수력발전소를 능가하는 수준이다.

삼협댐엔 3천t급의 선박이 통과할 수 있는 갑문이 설치된다. 홍수방지 효과가 2백 22억m<sup>3</sup>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당국은 이 댐이 준공될 경우 양자강 홍수빈도가 10년 단위에서 1백년 단위로 바뀌고 1천 5백만명 이상의 주민이 홍수위험에 벗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예상 총 공사비는 1백 77억달러이다.

## 케냐, 변압기 수요증가 전망

케냐의 변압기 시장은 소매가기준 연간 500만 달러 규모로 추산된다. 케냐는 전력 생산량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기존시설의 노후로 수요증가를 따르지 못하고 있어 전력사정이 아주 불량하다.

현지 변압기 시장의 70%가 전기·전자제품 보호를 위한 외부부착용과 전기·전자제품 내부 부착 수리용이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주로 전기 통신공사에서 사용하는 용량이 650~1만VA의 대형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케냐는 변압기를 생산하지 못해 전량 수입

하고 있는데 가정용 냉장고, TV, 전축 등에 사용하는 소형 250~1천VA의 경우 소매가격이 약 48달러에서 108달러선으로 판매되고 있으며, 대형 650~1만VA의 경우 8,700~9,100달러선에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케냐는 '95년들어 자국화폐 가치의 안정과 경제 활성화등으로 국민들의 생활수준이 점차 향상됨에 따라 전기·전자제품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변압기의 수요도 크게 증가될 전망이다.

변압기는 수입자유화 품목으로서 수입관세는

Liquid dielectric transformers가 5%, 기타가 10%이며 부가가치세가 16% 부과되고 있다. 또한 수입물품의 선적전 수출검사(SGS)가 철저히 준수되고 있다.

전기통신공사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대형변압기의 경우 탄자니아산이 유통되고 있는데 탄자니아는 케냐와 국경을 접하고 있어 운송비가 낮기 때문

에 가격 경쟁력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소형제품의 경우 고급전자제품에는 주로 영국산으로 내용연수, 안전도 등이 크게 뛰어나 최고급품으로 사용되어지고 있고 그다음은 인도산, 스페인산 등인데 이들 제품이 소매가 기준 영국산에 비해 약 10% 정도 낮게 판매되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베트남, 1만4천MW 發電設備 건설계획

최근 베트남은 급속한 경제성장에 필요한 전력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2010년까지 현재 발전설비 4천 4백 70MW의 세배에 이르는 1만 4천 70MW의 발전소를 건설해야 할 것으로 전망했다.

발전소 건설에는 약 2백억 \$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며 이외에 구소련이 건설해 놓은 송·배전망을 개체해야 하는 투자를 고려하면 전력산업 투자는 막대한 규모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원만한 재원조달을 위해서는 민간투자가 필요하지만 투자에 대한 제도적인 보장이 미비되어 있는 실정이다.

베트남 정부는 발전소 건설에 대한 민간투자를 적극 희망하고 있으나 전력수급 계약에 대한 표준

안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등 투자에 대한 법적 장치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다.

대만기업이 호지밍시 외곽에 6백 75MW의 발전소를 건설하는 프로젝트의 경우 베트남 정부가 건기보다는 우기에 전력요금을 인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 프로젝트 추진이 수년동안 중지된 상태며, 외국기업의 투자수익에 대한 달러의 송금을 인정해 주지 않는 방침도 외국투자를 저해하고 있어 외국투자기업들은 베트남을 리스크가 매우 높은 국가로 인식하고 있다.

한편 베트남 정부의 투자정책이 선명하게 선정되면 수많은 민간 및 외국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 아모퍼스형 發電시스템 개발

일본의 태양광발전장치 메이커인 엠에스케이와 미국의 아모크 엔론솔라와 공동으로 아모퍼스형(非結晶型) 발전시스템을 개발, '97년부터 일본에서 판매한다.

지금까지 주류를 이루었던 결정실리콘형에 비해

가격을 절반수준으로 낮춰 주택용을 중심으로 판매할 예정이다. 아모코로부터 출자를 받아 재무구조도 개선할 방침이다.

아모퍼스형 발전시스템은 유리기판위에 비결정형의 실리콘을 얇은 막으로 부착하여 제조한다.

결정실리콘형에 비해 생산공정을 간략화할 수 있어 생산확대에 따른 잇점을 얻기 용이하다는 것이 특징이다.

아모코사는 일본·인도 등에 대한 수출확대에 대비해 미국 버지니아주에 공장을 건설해 놓고 있는데 생산규모 확대에 단가 인하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엠에스케이는 아모코로부터 반제품 형태로 수입하여 일본 국내에서 시스템용으로 조립한다. 자체 판매 외에도 미사와홈의 신축주택용으로 판매할

방침이다.

또 엠에스케이는 이달말 증자를 실시, 아모코사에 4천주를 인수토록 할 예정이다. 출자비율은 3% 이상이며 장래 태양광관련 공동사업을 전개하는데 대비, 관계를 강화한다는 목적이다.

아모코사는 발전시스템의 개발·제조외에 태양광을 이용한 발전사업에도 착수, 지난해 매출액이 5천만달러 달했다. 아모퍼스형의 투입을 계기로 장래 일본에서 25%의 세어확보를 겨냥하고 있다.

## 태국, 변압기부품 수입 급증

현재 태국에서는 변압기 생산이 매우 활발하긴 하지만 아직까지 많은 주요 부품들을 수입해야 하는 실정이다. Oil type의 부품중 Copper wire, Insulating paper, Steel plate 등은 주로 일본, 독일, 스페인, 스위스 등지에서 수입하고 있고,, Dry type의 부품으로 Resin, Fiberglass, Polyeter, Steel plate 등은 스위스, 대만, 독일, 일본에서 조달하고 있다.

한편, Electronic transformer의 경우 자동화 도입에 저임노동력의 이점이 줄어들긴 했지만 아직까지 태국제품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편이다. 최근에는 주문생산이 보편화되고 있지만, 노멀타입의 Electronic transformer는 중국산이 점차 시장을 잠식해 가고 있는 실정이다.

태국의 변압기 수입규모는 부품수입을 포함해 '90년 1억 500만달러였던 것이 '94년에는 2억 1,900만달러로 매년 대폭적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연간 최소 2억달러 이상을 수입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앞으로도 태국정부가 전자산업을 중

점적으로 육성하고 있고 TV, 정보통신부문의 발달에 따라 변압기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 3년간 연평균 55%의 수출증가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94년에는 2억 2,500만달러를 수출했다. Liquid dielectric transformer의 경우, 수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94년 생산능력 증대로 대폭적인 수출 증가세를 나타냈다. 현재 태국내 생산으로는 국내 수요도 충족할 수 없어 많은 중국산 변압기가 수입되고 있다. 변압기에 대한 수입관세는 품목에 따라 5~27%에 이르는데 '97년 1월 1일부터 수입관세가 다소 내려갈 예정이다.

최근 6년간 가정용 및 산업용 전력수요가 연평균 12~14% 증가함에 따라, 태국 정부는 발전능력을 현재의 약 3배인 3만MW로 증가시킬 계획이다. 특히 산업공단 지역 그리고 지방지역의 전력공급 확대 계획에 따라 이 지역의 산업용 변압기 수요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최근

의 건설경기 활황에 따른 일반 변압기의 수요도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Electric transformer의 경우, 정부부문의 수요가 전체의 약 70%를 차지하기 때문에 대부분 입찰 또는 정부구매 형식으로 계약이 이루어진다.

민간부문에서는 공장, 오피스빌딩, 아파트, 호텔 등지에서 수요가 발생하는데 전체의 30%에 불과한 실정이다.

최근 Electronic transformer의 경우, 표준규격의 제품보다는 각 가전제품 제조업체들의 스펙에 따른 주문생산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일반적인

유통구조는 제조업체가 최종수요자인 완제품 제조 공장에 직접 납품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20~30%의 마진을 붙이고 있으며, 중간도매상 또는 수입상을 거쳐 최종 수요자에게 유통될 경우, 도매상이 1.5~10.0% 정도의 중간마진을 붙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변압기의 경우, 태국에서는 미국의 UL 표준에 부합해야 하며, 대부분 구매자가 자신이 필요한 모델과 스펙을 주고 주문을 하기 때문에 최종 수요업체의 구매담당부처를 직접 접촉해야 할 것이다.

## 日, 制御機器 수요 성장 전망

오는 2005년 일본 제어기기 및 제어 시스템의 생산·출하 규모는 1조엔에 달할 것이라고 일본의 電波新聞이 보도했다. 이같은 전망은 日本制御機器工業會(NECA)가 내놓은 것으로 앞으로 제어기기 및 제어 시스템 수요는 산업사회의 합리화, 성력화등의 필요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서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기술혁신에 의해 새로운 상품이 다수 개발되면서 시장확대가 한층 더 빠르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NECA는 또한 장차 전자제어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공장자동화(FA)에서 전자제어 시대로 변해감에 따라 제어기기 및 제어시스템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는데 이를 위해 관련업계 나름대로의

역할도 필요한 것으로 NECA측은 진단하고 있다.

'95년도 일본에서 제어기기 및 제어시스템의 수요는 전년대비 8.2% 증가한 5,715억엔으로 나타났다. '96년도에도 이같은 증가세가 계속돼 약 6% 신장한 6,058억엔으로 6천억엔대를 넘어설 것이 확실시된다. 금액기준으로 큰 폭의 신장률을 보이지 못하고 있지만 수량면에서는 대폭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오는 2005년 제어기기 및 제어시스템의 시장이 1조엔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이 분야가 21세기를 향한 모든 관련산업의 활동에 중추적 역할을 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 미얀마, 電線 需要 급증세

미얀마에서 전선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96 미

얀마 방문의 해' 행사에 대비 호텔·쇼핑센터 등

건축붐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시장개방에 따라 각종 전기·전자제품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도 전선 수요를 부추기고 있다. 또 각종 송배전 설비의 노후화에 따른 대체수요도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미얀마에서 전선을 생산하는 곳은 산업2부 산하 국영 중공업공사 뿐이며 이 공장에서는 9가지 종류의 전선을 생산하고 있다.

국내수요에는 크게 못 미치고 있어 미얀마는 민간부문은 물론 정부부문에서도 대부분의 전선 수요량을 수입하고 있다.

대부분 국제입찰을 통해 수입하고 민간부문의 경우 주로 인근 중국·태국 등으로부터 국경무역을 통해 수입하고 있으며 일부는 L/C 개설을 통해 수입하고 있다.

미얀마의 전선수요는 대략 연간 10만~15만km로 추정되고 있다. 수입관세율은 15%(종가세)이며 특별한 수입규제 조치는 없다.

미얀마는 외환사정이 나빠 전선 구입시 품질보다는 가격조건을 중시한다. 그러나 일부 일본·싱가포르·태국 등 외국 투자기업이 호텔·오피스텔 등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가격이 다소 높아도

고급품을 선호하기도 한다.

과거 영국의 오랜 식민지배를 받아온 관계로 전선 규격은 아직까지도 영국식이 이용되고 있으며 중국산이 영국산과 규격이 동일해 미얀마 시장을 50% 이상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중국산은 국경무역을 통해 무관세로 수입되고 있으며 품질도 가격에 비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향후 상당기간 미얀마시장을 석권할 것으로 예상된다.

태국도 지리적 근접성과 낮은 가격으로 미얀마 수입시장의 약 20% 정도를 점유하고 있다.

미얀마 전선시장 진출시 가장 고려해야 할 사항은 가격조건으로 이미 70% 이상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중국산과 태국산에 비해 경쟁력이 있어야 한다.

한국산 전선은 아직까지 미얀마시장에서 잘 알려지지 않으나 시장개척단 방문등 사례로 보아 품질만큼은 인정을 받아 관심을 보이는 바이어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상태다.

따라서 미얀마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시장개척단 방문등을 통한 현지 직접 진출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 日, 汎用인버터 해외생산 확대

일본의 重電機器메이커들이 汎用인버터의 해외 생산 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다. 도시바·야스카와 전기·미쓰비시전기 등 선발기업들은 이미 진출해 있는 북미생산거점을 크게 증가할 계획이며 후발 기업인 후지전기도 미국 GE(제너럴 일렉트릭)사와 합작으로 미국시장용 제조판매회사를 멕시코에 설립, '97년초부터 조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후지

전기는 이번 진출을 계기로 세계세어를 종래의 11%에서 일거에 20%로 끌어올릴 의욕을 보이고 있다.

일본의 중전기기업체는 설비투자 의존형 업종이어서 전력회사의 설비투자억제경향과 민간설비투자 정체등으로 '低空飛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런 가운데서도 汎用인버터만은 활

기를 띠고 있다.

일본통산성이 집계한 '95년중 인버터 전체의 국내생산량은 전년비 31.2% 증가한 137만 6천개, 금액베이스로도 19.9% 늘어난 1,026억엔을 기록, 사상처음으로 1천억엔대를 돌파했다.

특히 용도를 특정하지 않는 범용인버터의 생산량은 전체의 95%를 점하고 있다. 일본전기공업회는 중기예측에서 인버터중에서도 수요증가가 현저한 75kw 이하의 범용인버터에 대해서는 '97년에 수출분을 합쳐 국내 생산액이 800억엔, 생산량이

167만개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를 '94년 실적과 비교하면 금액베이스로 27.8% 증가, 수량베이스로 41.6% 증가할 전망이다.

범용인버터는 주로 전동모터의 회전속도등을 변경하는 제어장치로 사용된다. 최근들어 생산활동이 활기를 띠고 있는 것은 FA에 따른 생산현장용 수요가 늘어난데다 의료·건강기기 및 어뮤즈먼트기기분야에서도 용도가 확대되고 있으며 해외시장에서도 수요가 크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 독일, 드릴공구 사용 늘어

드릴공구는 독일가정의 필수품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94년을 기준으로 독일의 드릴공구 수요액은 DM 3억 5,941만에 이르렀다.

독일 전통적으로 우수한 드릴공구 생산국으로 알려져 있는데, 특히 Bosch 및 AEG사의 제품은 세계적으로 정평이 나 있다. 독일의 제품 품질비교연구기관인 Test가 드릴공구를 테스트한 결과 AEG사 및 Bosch사의 드릴공구가 성능면에서 단연 우세한 것으로 드러났다. 생산동향을 살펴보면 '94년에 DM 4억 6,690만에 이르렀는데 이는 '93년의 DM 4억 6,933만에 비해 다소 감소한 것이다.

독일 드릴공구의 수출동향을 살펴보면 '94년에 DM 5억 2,661만이 수출돼 '93년의 DM 4억 3,559만에 비해 약 20% 높아졌다. 이와같이 독일 드릴공구의 수출액이 높은 것은 물론 성능면에서 우수하기 때문이다.

'94년을 기준으로 국별 수출동향을 살펴보면 수출대상국이 EU뿐만 아니라 미국, 홍콩, 일본 등 다양하게 분산되어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94년을 기준으로 독일 드릴공구에 대한 최대 수입국은 DM 9,850만을 수입한 벨룩스였으며, 다음은 DM 6,533만을 수입한 프랑스였다.

'94년을 기준으로 독일의 드릴공구 수입액은 DM 4억 1,912만에 이르렀는데, 이는 93년의 DM 3억 9,899만에 비해 5% 가량이 늘어난 것이다. '94년을 기준으로 국별 대독일 수출을 살펴보면, DM 1억 1,237만을 수출한 스위스가 최대 공급국이며 다음은 DM 6,470만을 공급한 중국이었다.

다음으로 드릴공구에 대한 수입관리제도를 살펴보면 특별한 수입제한제도는 존재하지 않으며, 다만 관세가 3.4%에 이른다. 한국제품에 대해서는 96년 1월 1일부로 GSP 혜택이 중단되었다.

## 日 소형모터 메이커, 해외생산 강화 지속

일본의 소형모터 메이커들은 건조한 수요를 바탕으로 생산능력, 특히 해외생산체제 강화의 움직임을 더욱 가속시키고 있다. 이는 특히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AV(음향영상)기기, 정보통신기기 메이커 등 소형모터 수요처의 해외생산이전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동남아시아에서의 가격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방침에 의한 것이다. 마츠시타전기모터가 해외생산비율을 60%로 상승시키는 한편, 미스미전기, 오리엔탈모터등 대부분의 업체들이 해외생산 강화 계획을 수립하고 있어, 향후 동부문의 해외생산 비율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95년 중반까지 공급부족현상을 나타냈던 소형

모터시장은 95년말 동남아시아에서의 AV기기사장 정체 및 미국시장에서의 PC판매저조 등에 따라 수요신장세가 다소 둔화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급속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휴대폰, PHS(간이휴대전화) 등의 수요가 확대를 지속하고 있고, 또한 카네비게이션등 자동차전장용품의 시장도 확대세를 보이고 있어, 관련제품은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CD-ROM용을 비롯, HDD용, FDD용, PPC용, LBP용 등의 정보기록용의 수요도 견조세를 보이고 있는외에 AV기기용도 5월 이후에는 서서히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등 전체적으로 소형모터의 수요는 증가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화란, 절연電線 시장 활황

화란의 전선류 시장이 활황을 보이고 있다. 2, 3년전부터 건축경기가 살아나고 있고 사회간접자본 확충사업이 정부 주도로 펼쳐지고 있으며 민간 기업들의 통신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정보통신분야의 설비투자가 본격화, 전선류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화란의 전선산업은 동축케이블, 절연전선, 광케이블 등을 포함, 연간 생산규모가 1억길더를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도별로 보면 산업용 전선이 60% 이상, 가정용 전선이 40%를 차지하고 있다.

비교적 생산규모가 큰 전선업체를 보유하고 있

는 화란은 전선산업을 국가의 보호산업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그중 Drand Cable사가 제일의 전선 회사로 꼽히고 있다.

화란의 절연전선 연간 수입규모는 1억 6천만~1억 7천만길더 정도이다. '93년 총 수입 1만 8천톤, 1억 5,300만길더에서 '94년에는 2만 2,600톤, 1억 7,500만길더로 각각 23.0%, 14.3%의 증가율을 보였고 '95년에는 전년수준의 수입규모를 보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경기가 본격 회복되기 시작한 '93년부터 건설경기가 되살아나 정부의 사회간접자본 투자가 이뤄지면서 절연전선의 수요가 늘어난 결과로 보인다.



화란의 절연전선 주요 수입국을 보면 벨기에·독일·프랑스 3개국이 전체 수입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화란에 대한 수출이 '93년까지 전무했던 한국산 절연전선은 '94년부터 소량이나마 수출이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한국산 절연전선은 아직 화란시장에서 검증단계에 있으며 본격 수입이 이루어지기까지엔 향후 2~3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화란의 전선류 수출은 '94년에 총 2만 5천톤, 1억 5,600만길더를 기록, 전년대비 각각 22.6%, 13.6% 증가해 비교적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당량이 재수출이나 우회수출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벨기에와 독일이 총 수출 물량의 50% 이상 차지하는 시장으로서 '94년 수출실적을 보면 벨기에가 7천톤, 4,120만길더, 독일이 6,600톤, 3,670만길더를 기록했다.

EU 일반특혜관세(GSP) 적용 대상국가는 영세

율이 적용되고 있다. 일반관세는 4.8%로서 한국산의 경우 홍콩산 전선류와 같이 일반관세를 적용받고 있다. 한편 전선류의 수입은 화란의 전기안전규격 승인을 받은 제품만 허용되고 있다.

수입실적 (단위 : 천길더)

국 별	1993	1994	95. 1~10
벨 룩 스	44,916	70,845	67,682
독 일	62,131	56,237	44,885
프 랑 스	12,527	13,751	16,725
대 만	—	176	210
일 본	—	129	170
홍 콩	—	116	419
한 국	—	74	56
싱 가포르	585	—	—
기 타	33,299	34,067	35,433
총 계	153,458	175,395	165,580

(자료 : 중앙통계국(CBS) 수입통계 자료)

※ 1달러=1.86길더('93년), 1.75길더('94년), 1.60길더('95년)

## 북한, 발전소 현대화 위해 독일기업 초청

북한의 발전소 현대화를 위해 독일 중공업 분야의 중견업체인 ABB사의 기술진이 북한의 초청에 의해 최근 방북하였음이 밝혀졌다.

이들과 동행한 북한경제정보원의 Lein박사에 의하면 독일 ABB사에서 파견된 인원은 3명의 발전분야 전문가였으며 이들의 방문목적은 북한의 한 발전소의 발전기술을 세밀히 검토, 분석하는 것이었다고 한다.

또한 동인에 의하면 ABB사는 금번 조사방문을 기초로 북한 발전소의 현대화를 위한 향후협력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며, 현재로서는 발전소의 현대

화를 위해 북한 기술진이 담당하기 어려운 분야는 ABB사가 책임지고 나머지는 북한의 현지 기술진이 책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하고, 금번 ABB사가 북한을 방문한 것은 단지 1개의 발전소를 현대화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동 발전소를 모델로 모든 북한의 발전소를 현대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금번 초청한 ABB사는 동유럽 및 러시아 발전소의 현대화에 다년간의 경험을 축적하고 있어 동구형 발전기를 사용하는 북한발전소의 현대화에 매우 적합한 기업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